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 은혜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의 전운과 전 세계의 불안한 경제상황,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 재해와 재난, 민족과 인종간의 차별과 증오로 새해에 꿈꾸던 희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안에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땐 생각 없이 따라 불렀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인간의 실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돼, (하날세, 우리 모두다)X3 하날세’

비록 암울한 2022년 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니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기길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동역자들께서 한 영으로 교통하고 중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선교사 부부

저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생물학제 치료가 현지인 친구 아내(의사)의 도움으로 현지병원 시스템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격주 간격으로 생물학제인 아달리무밤을 맞고 있으며, 정기적 혈액검사로 몸을 체크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눈에 떨 만한 호전 증세는 없으나 주의 은혜로 병이 회복 될 것을 믿고 지냅니다. 치료도 검사도 많은 혜택과 돌봄 안에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내 문정미 선교사는 크로아티아 학습을 다시 시작하여 학교를 다닙니다. 그 동안 자녀들 돌보고, 저를 돕는 일로 엄두도 못 내었지만 이제 세 자녀 모두 떠나고 또 저희 사역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아내가 언어 공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매일 학교에 다니는 일로 힘 들다 하지만, 언어적 진보를 이루는 성장을 통해 활력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생물학 치료제(아달리무밤)



자그레브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저희도 코로나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자녀들이 자그레브를 방문한 기간에 감염이 되어 가족 모두가 양성판정을 받았고, 그 후 2주간 자가 격리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그 덕분인지 감염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조금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변화의 전환점

저희에게는 지난 해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첫째, 건강의 악화

지난 해 초부터 시작된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역을 조정하고 다시 점검해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둘째, 자그레브 한인교회 사임

한인 목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 했던 현지 교회와의 협력사역 그리고 현지인 지원 사역들이 사임과 더불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셋째, 가정 환경의 변화

세 자녀들이 학업 차 모두 가정을 떠남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전함과 외로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우리말 성경).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변화의 전환점에서 평안으로 지내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3. 말씀 사역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나니 큰 짐을 내려 놓은 듯 홀가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사라졌다는 것이 큰 손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열정은 한글 학교로 쏠리게 되고,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인 목회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유럽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수 많은 좌절의 경험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회, 화, 수, 목에 현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화, 수요일은 한글 학교의 성경 수업으로, 목요일은 줌을 통해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수요일 성경수업을 할 때 일입니다.

수업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은혜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업 후 가방을 싸던 키아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한국말이 제 머리에 크로아티아 말로 다 들렸어요!”

“그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의 배경을 알고 나니 이젠 어렵지 않아요.”

“흐흐 그래”

한국말이 아니라 영안이 닫혀 몰랐는데,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니 이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근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번은 성경 수업을 할 때, 시작 기도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파울라가 대뜸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도 안 했는데요!”

“아! 미안.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감동의 은혜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화요일 반을 가르칠 때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수업을 마쳤을 때 학생 중 두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거예요”

“응..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두 학생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블라즈가 제게 물었습니다.

“화요일에 몇 명이나 왔어요?”

“지지난 주 7명, 지난 주 4명, 이번 주 6명...”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다음 주에 더 줄어 들 수도 있어.. 안 나오겠다는 학생이 둘이 더 있었거든”...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목요일은 크로아티아어로 공부하는 일대일 입니다. 마테이가 프랑스로 간 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Srebra i zlata nema u mene, ali što imam – to ti dajem: u ime Isusa Krista Nazarećanina hodaj!)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깊이 와 닿아 그에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그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고백했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수요 성경공부반(키아라, 파올라, 블라즈)



화요 성경 읽기반



마테이 자그레브 방문 때.

(2022.2.26일자 국민일보 기사 [서윤경 기자의 선교, 잇다] '복음 식은 크로아티아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영적 단비를' 참조).

4. 자그레브 한글학교

주님께서 2022년 봄학기에도 저희가 감당할 만큼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 주셨습니다. 41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전부터 자그레브에도 세종학당, 국제교육원 등의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기관들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14명의 신입생이 등록했고, 총 8개 학급의 수업이 진행되고, 첫 졸업을 앞둔 학생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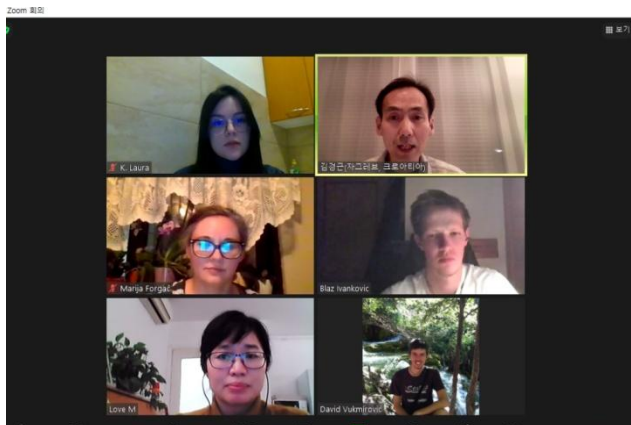
명이 있습니다. 졸업 예정인 두 명은 저희 학교를 4년 동안 다닌 학생들입니다. 졸업 예정자 중 한 명은 한국 대사관 직원이 되었고, 또 학교의 견습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졸업생들이 학교의 동역자요, 협력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마리아, 블라즈, 다비드, 라우라 입니다. 저는 올 1월에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 회식



한글학교 봄학기 등록일(2022.2)



온라인 교사 모임

5. 그 외 사역

1. 페트리냐 침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종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크로아티아 침례교 연합회를 통해 페트리냐 지진 피해 성금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이름으로 전달 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찾아가 격려를 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초코파이를 가지고 가서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페트리냐 컨테이너 정착촌에 들러 그 곳에서 우연히 블라도라는 형제와 마리아, 나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밝힌 저에게 환대와 자신의 컨테이너 안까지 초대하여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음 번 방문 때, 그들을 다시 찾아 가 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정착촌에는 80동의 컨테이너와 140명의 거주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페트리나 컨테이너 정착촌



나다, 마리아, 블라도

2. 한인교회 사임 후 주일이 되니, 갈 정기 예배처소가 없다는 것이 난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임 결정 후 현지 교회를 방문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불과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코바르 블라도 목사의 소속 교단 교회로, 담임 목사인 미슬라브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때는 매주 이 곳에 교회 예배를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출석해 그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 좋습니다.

3. 크로아티아 군선교회는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군선교회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6시 33분에 온라인 기도회를 합니다. 자그레브 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MCFC 멤버들이 온라인 상에서 모여 기도하고 나눔을 가집니다. (오른쪽 제일 끝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접니다^^)



6. 선교사 자녀

지난 1월 말에 아이들을 방문하러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아이들이 사는 집과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고 또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저희의 방문이 세 아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하여 주십시오.



헤이그의 막내 딸



암스텔담의 큰 딸과 아들

7. 기도제목

1) 선교사 가정

- 김경근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위해서
- 문정미 선교사의 학업에 은혜가 있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 영은, 이삭, 영진 세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고 영과 육으로 자라도록

2) 선교 사역

- 사역의 전환기를 잘 적응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도록
- 자그레브 한글학교를 통한 복음 전파와 학교의 성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블라즈, 키아라, 파울라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3) 중보 기도

- 크로아티아 군선교회와 드라젠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하도록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고난과 환란이 속히 끝이 나고, 유럽에 평화가 찾아 오도록.
-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동역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2022년 4월 7일
부활을 기다리며
자그레브에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드림